



기후변화를 향한 한국 청년들의 목소리

기후변화로 인한 감정과 대화 시도를 중심으로

이혜선 국립암센터 암지식정보센터 박사후연구원

호규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Voices of Korean Young Adults on Climate Change*

Emotions and Communication Attempts Driven by Climate Change

Hye-Sun Lee**

(Postdoctoral Researcher, National Cancer Control Institute, National Cancer Center)

Gyuhyun Ho***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Sogang University)

Climate change is a serious issue because it has the potential to produce bo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difficulties for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hen young adults believe they are powerless to address or reduce climate change, they may experience negative emotions such as depression, anxiety, pain, frustration, or betrayal. This study contributes to an elaborate understanding of this severe issue by examining how young adults, as critical stakeholders in climate change issues, perceive and feel about climate change. There is a dearth of research that examines the emotions or perceptions of Korean young adult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concentrated on the concept of "young adults" as a signifier that has been constructed by external interpreters, rather than examining their firsthand perspectives on climate change issues in Korea. In order to address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s and emotions of Korean young adults on climate change. It places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listening to the voices of Korean young adults, who offer their firsthand perspectives o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Green Behavioral Institution at the Korea SHE Foundation. We would like to acknowledge the Environmental Communication Divis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the reviewers, and the Korean young adults who participated in our survey and focus group discussions(이 연구는 2023년에 재단법인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로부터 연구지원을 받았으며, 2024년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환경커뮤니케이션 연구회 세션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발전된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해주신 사회자·토론자 선생님들과 익명의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설문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아낌없이 나눠주었던 한국의 청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 lhs@ncc.re.kr, corresponding author

*** sin7552@gmail.com

climate change issues. We employed a mixed-methods approach, conducting a survey with a total of 500 Korean young adults, followed by focus group discussions to interpret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results show negative perceptions or emotions due to climate change, such as seriousness, concern, anxiety, and fear. It was reported that 64 percent of respondents experience anxiety due to climate change, and around fifty-nine percent experience fear. Optimism is the most disagreed-with emotion among the perceptions or emotions related to climate change (87.8%). Moreover, around 40 percent of respondents reported not discussing climate change with others. The contexts of these results were examined through the firsthand perspectives of nine Korean young adults during the focus group discussion.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young adults experience severe and apprehensive emotions when they observe tangible changes in their daily lives, including temperature fluctuations, natural disasters, and shorter seasons. Additionally, they can escalate into anxiety or fear when they perceive it as challenging to find a clear solution or hope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They also pointed out that feeling optimistic about climate change is difficult because young adults have yet to experience positive impacts or results from these issues. In particular, the media predominantly communicates information regarding the detrimental effects of climate change-related behavior or policy, as opposed to the beneficial effects. We further found some misunderstandings related to discussions of climate change. For instance, one group is concerned that they might come across as nagging when discussing climate change. Another group, however, expects they cannot engage actively in discussions because they don't have in-depth knowledge of climate change. This study expands previous research addressing the perceptions and emotions of young adults worldwide regarding climate change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from Korea.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for the field of environmental communication.

Keywords: Climate Change, Young Adults, Climate Anxiety, Mixed Methods, Environmental Communication

국문초록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한국 청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기후변화를 향한 한국 청년들의 감정과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기후변화와 한국 청년 간의 관계를 다뤄왔던 기존 논의를 확장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량적 자료 수집 방법인 설문조사와 정성적 자료 수집 방법인 초점 집단 토론을 함께 적용하는 혼합방법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9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500명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감정과 인식을 질문하였다. 개방형 문항 답변 분석 결과, '심각', '걱정', '체감', '불안', '두려움' 등이 주요 단어로 등장하였고, 폐쇄형 문항 답변에서도 '불안'이나 '두려움'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반면, 기후변화로 인한 감정 가운데 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감정은 '낙관(긍정)'이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대화 시도 경험을 질문하였을 때 '기후변화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에 동의하는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점 집단 토론에서는 세 가지 결과의 맥락을 살펴보았는데, 참여자들은 기후변화 이야기가 '심각'과 '체감'에 머물러있고 낙

관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대화에 관한 오해가 발견되기도 했다. 주요 결과를 토대로, 공포, 위협, 압박 등을 벗어난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 기후변화, 청년, 기후 불안, 혼합연구방법, 환경커뮤니케이션

1. 문제제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기후변화에 따른 신체 건강 위협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기존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후변화가 개인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WHO, 2022). 기후변화는 대기 오염, 물 부족, 생계 혹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변화를 막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고 느끼면 상실감이나 좌절감을 경험하기 쉬운데, 세계보건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 배신감, 불신 등을 경험하는 주체로 청년을 지목하였다. 2021년에는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나이지리아 등 10개국 16세~25세 10,000명 대상으로 기후변화를 향한 감정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의학 전문 학술지(the lancet planetary health)에 발표되기도 했다(Hickman et al., 2021).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후변화를 향한 한국의 감정과 인식, 특히 한국 청년의 감정과 인식에 주목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현상은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을 언급하였던 선행연구(김민정·이상준, 2023; 박현선, 2021; 안새롬, 2022)에서도 반복되는데, 청년 중심의 기후운동이나 기후 커먼즈를 논의하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한국의 청년들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는지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을 청년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박해선·김현옥·김소형, 2023; 최상미·유효은·김한성, 2019). 기후변화 문제 역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당사자일지라도 이들 스스로 발화한 언어를 청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나 관점 등을 폭넓게 조명할 수 있다(Strife, 2012).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을 언급하였던 기존 논의에서 당사자인 한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후변화를 향한 한국 청년들의 감정과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에게 주목했던 기존 논의를 확장해보고자 한다.

‘청년’이나 ‘청년세대’라는 기표는 외부의 해석자에 의해 구성되기 쉬운데, 이러한 특징은 청년을 해석 대상의 자리에 위치시키는 청년 타자화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선기, 2016).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을 언급했던 선행연구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청취하기 어려웠던 점도 청년 혹은 청년 세대론의 특징인 ‘청년 타자화(김선기, 2016)’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청년 타자화를 경계하기 위해, 이 연구는 기후변화를 향한 감정과 인식을 당사자인 한국 청년들이 발화한 표현에 기대어 해석해보기로 했다. 즉, 기후변화에 관한 감정과 인식을 살펴보는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초점 집단 토론을 뒤이어 진행하

였다.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들은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 ‘기후변화의 심각성 체감’,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낙관(긍정) 가능성의 부재’ 등을 해석해주었고, 특히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대화에 관한 다채로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 청년들의 기후변화에 관한 감정과 인식, 더 나아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당사자의 언어를 통해 살펴본 연구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먼저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을 조명했던 기존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들을 외국의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 소위 ‘청년세대론’으로도 불리는 한국 청년을 향한 시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기후변화를 향한 한국 청년들의 감정과 인식을 당사자의 목소리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밝힌 뒤,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 주목할 만한 지점을 소개하고, 해당 결과의 맥락을 논의하였던 초점 집단 토론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커뮤니케이션 연구로서, 이 연구는 기후변화 논의를 한국의 청년들이라는 당사자의 ‘목소리(Couldry, 2010)’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1) 공허한 ‘한국의 툰베리’ 찾기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은 청년운동, 기후 운동, 기후 커먼즈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배경을 고려하여 해석해볼 수 있는데, 먼저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등장으로 한국에서 기후변화와 청년을 연결하여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레타 툰베리는 2018년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이자 환경운동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으며, 2019년 당시 17살의 나이로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연설을 하기도 했다. 그레타 툰베리의 등장은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이기도 하지만(최우리, 2022), 청년을 대변하는 인물(Haugseth & Smeplass, 2023), 달리 말하면 한국에서 ‘청년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의 출현이기도 했다. 한국의 언론보도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면, 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 빅카인즈(BigKinds) 기준으로 ‘기후변화’와 ‘청년’을 기사 제목과 본문에 함께 사용한 기사를 검색하였을 때, 2018년 262건이었던 기사는 2019년 441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20년에 604건이

있던 기사는 2021년 그레타 툰베리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참여 소식과 함께 1,123건으로 증가)한다.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하여 한국의 청소년 혹은 청년을 대표하는 인물로 언급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레타 툰베리는 한국에서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이자 액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부각시킨 대표적인 청소년 환경운동가”이자, “기후변화에 대해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고 해결해야 할 당사자 세대”로 표현된다(김지인, 2021, 48쪽). 그레타 툰베리의 등장은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파리협정 채택 이후 “미래세대들이 분노하기 시작(98쪽)”한 결과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됐다(최우리, 2021). 이러한 언급은 그레타 툰베리를 청소년을 대표하는 인물로 언급함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최대 피해자’,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고 해결해야 할 당사자’, ‘분노하는 미래세대’, ‘새로운 시대’ 등의 표현을 함께 부여한다. 다른 한 편으로, 그레타 툰베리를 청소년 혹은 청년의 대표 인물로 언급하는 경향은 기후변화 문제에 관하여 한국의 청소년 혹은 청년들까지 그레타 툰베리 중심으로 해석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예를 들면, 2018년 그레타 툰베리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은 ‘청년들의 움직임이었으며, 청년 세대는 그레타 툰베리의 등장인 2018년 이후 기후 운동의 중심에 섰다(김민정·이상준, 2023). 한국의 기후 운동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동참하는 한국 청소년, 즉 ‘한국의 툰베리’들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있다(최우리, 2021). 이처럼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소년 혹은 청년들이 그레타 툰베리 중심으로 해석되면서, 그레타 툰베리 등장 이전인 2014년에 조직된 GEYK(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을 포함한 한국의 단체들은 ‘청년을 내세운 기후 단체(김민정·이상준, 2023)’, 청년 기후 운동(안재롬, 2022), ‘글로벌 청년 기후 운동에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청년(박현선, 2021)’ 등의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기후변화와 한국 청년 간의 관계를 그레타 툰베리라는 한 인물에 의존하여 해석하는 경향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한국 청년들을 특정 표상에 투영시킴으로써 대상화하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문제는 그레타 툰베리를 청년의 대표자로 묘사함에 따라 그레타 툰베리라는 표상 혹은 기표에 청년의 권위를 위임시키고 개인 간의 다양성을 소거하는 것, 그리고 외국의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에 의존한 해석으로 인해 기후변화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어렵다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사실 그레타 툰베리는 대표성에 관한 자기주

1)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기후변화’와 ‘청년’을 동시에 언급한 전체 기사 6,00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73건은 2021년 이후 보도되었으나, 같은 시기 ‘기후변화’를 기사 제목 혹은 본문에 사용한 언론보도 219,814건 가운데 2021년 이후 사례는 74,820건으로 약 34%에 불과했다. 또한, ‘그레타 툰베리’는 빅카인즈 기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기후변화’와 ‘청년’을 동시에 언급하였던 언론보도 대상 연관어 분석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출현한다.

장을 펼친 바 있다. 예를 들면, 2018년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 당시 팻말에 적힌 문구는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었으나, 2019년 3월 가디언즈와의 인터뷰에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캠페인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우리’로 지칭한다(Watts, 2019). 2019년 9월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는 그레타 툰베리 스스로 ‘우리 청년’, ‘우리 세대’, ‘모든 미래세대의 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이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부르디외(김현준, 2023; Bourdieu, 1991)의 재현의 정치 논리에 따르자면, 이는 청년, 미래세대, 또는 그레타 툰베리에게 ‘우리 세대로 인식되는 누군가가 대표성을 위임한 결과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레타 툰베리라는 표상 혹은 기표에게 대표성을 위임한 ‘청년’이라는 위임자, 특히 ‘한국 청년’의 대표성 위임은 당사자의 인식과 무관한 외부의 구성)이다. 즉, 기후변화 운동을 전개하는 한국의 청년 혹은 청소년들조차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의 툰베리(김지예, 2021; 윤상언·박건·최연수, 2020; 최우리, 2021)’로 불리고, 그레타 툰베리의 캠페인에 동참한 청소년기후행동은 청년 혹은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사례로 청년세대론을 논의하기 위한 분석 대상이 된다(안새롭, 2022).

2) 한국 청년을 향한 ‘청년세대론’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들을 외국의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 위주로 해석하게 된 배경에는 소위 ‘청년세대론’으로도 부르는 한국 청년을 향한 두 번째 시선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애초에 ‘청년’이나 ‘청소년’이라는 기표 자체가 세대론을 기반으로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리라 기대되는 존재에게 부여하기 위해 구성된 개념이고(김홍중, 2015; 원용진·이동연·노명우, 2006), 한국의 청년세대 담론은 기성세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젊은 층을 청년세대로 호명하며 이들을 정치적 주체로 구성하려는 시도를 반영하기도 한다(김선기, 2016). 이는 기후변화 문제에서 당사자인 한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어려웠던 지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현재까지 한국의 청년세대 담론은 ‘청년’을 정치적 주체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정치적 주체로 재구성된 기표인 ‘청년’에 한정하여 논의하는 한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을 언급한 소수의 연구(김민정·이상준, 2023; 박현선, 2021; 안새롭, 2022)는 ‘청년’의 정치 참여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들은 ‘청년’이라는 기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일부 사례의 해석 결과를 확장한다.

2)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의 툰베리’로 불리는 경향은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비판받기도 했다. 공현(2022)은 청소년 활동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에 참여한 활동가는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표현이 “미래세대가 위협에 처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프레임(103쪽)”이나 “어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지 않고 시위를 선택한 10대 소녀의 이미지(104쪽)”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선기(2016)는 청년세대를 둘러싼 비판적 담론 분석을 수행하며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 먼저 청년의 타자화, 즉 ‘청년’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이 외부 해석자에 의해 구성되며 당사자인 청년은 해석 대상이자 비주체의 위치에 놓인다는 것이다. 청년에게 비주체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나이가 어린 대상을 미숙한 존재, 수동적인 존재, 보호와 훈육이 필요한 존재 등으로 보는 청소년 주의(youthism)와도 맞닿아 있다(김선기, 2016). 또한, 나이가 어린 대상을 향한 타자화로 인해 발생하는 의존, 무지, 낙담, 중독 등의 표현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어른과의 권력관계와도 관련되어 있어서, 해당 표현을 나이가 어린 대상 스스로 자신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Carter, 2014). 이처럼 외부 해석자에 의한 재구성의 결과로 ‘청년’을 미숙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은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에 주목한 기존 연구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안새롬(2022)은 청년 기후 운동 사례를 바탕으로 기후 커먼즈 정치에서 청년 및 미래 세대론이 갖는 함의를 논의하는데, 청년이 기후변화의 당사자이자 정치 주체로서 기후 커먼즈의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고 기성세대를 비판한다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지위가 높고 정치적 자원도 많은 ‘어른’과 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청년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지위가 높고 정치적 자원도 많은 어른과 연대하려면 기후 커먼즈의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지 않고 기성세대를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제로 이어지는데, 이는 청년들 스스로 발화한 의견이나 인식이 아닌 연구자의 해석에만 의존하여 도출된 지점이다.

한국 청년세대 담론의 또 다른 특징은 헤게모니의 부재로, ‘청년세대’라는 기표는 특정 집단이나 관점에 의해 독점되기보다 다양한 집단이 각자 읽어낸 방식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된다(김선기, 2016). 박재홍(2009)의 논의처럼, 이러한 특징은 애초에 세대라는 명칭 자체가 특정 연령층을 구분 짓고 차별화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생산자 혹은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세대 명칭은 기표 자체도 매우 다양하고, 비슷한 시기 태어난 연령대를 통칭할 수 있는 세대 명칭의 구성은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다(박재홍, 2009)³⁾. 이로 인해 세대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청년’이라는 기호는 본질적인 두 가지 한계를 지닌다. 먼저 어떤 기의를

3) ‘단일한 세대의 가정’과 ‘하나의 세대는 구분되어야 한다’(박재홍, 2009). 박재홍은 특정 연령층의 동일성을 가정하기 어렵다는 전상진(2002)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큰 공통분모에 주목한다면 세대 연구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 태어난 사람들 간의 공통분모를 논의하면서도 구성원 간의 다차원성이나 이질성을 의식하고 성찰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관련하여, 김선기(2014)는 세대의 보편성과 동질성을 언급하는 그 자체만으로 해당 담론은 진실 효과를 누린다고 지적하였다. 각각의 논의는 결국 세대의 보편성이나 동질성을 담보하거나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박재홍의 관점에 따라 비슷한 시기 태어난 사람들(예: 청년) 간의 거대한 공통분모를 발견하더라도, 이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관찰된 결과일 뿐 특정 세대를 향한 고정된 지식이나 선입견으로 치환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덧입히는 결국 우리 사회에 실재하는 청년들과의 괴리가 발생한다. 또한, 특정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청년 혹은 청년세대라는 동질 집단으로 규정하는 순간 집단 내 다양성이나 이질성과 정면으로 부딪힌다(김선기, 2016; 박재홍, 2009).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에 주목한 선행연구 역시 외부 해석자들의 관찰 사례를 ‘청년’으로 일반화하고, 논의 과정에 당사자인 한국 청년들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흥미로운 점은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에 주목한 선행연구조차 ‘청년’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 단체인 청소년 기후 행동의 기후 운동(안재룡, 2022), 청년 기후운동단체의 대표와 활동가들(김민정·이상준, 2023), “자신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한 사람(박현선, 2021, 15쪽)”이 ‘청년’을 대표하는 사례로 각각 제시된다.

우리 사회에 실재하는 청년과의 괴리, 그리고 청년들 간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한 보완적인 접근 방법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대 초반, 환경문제에 대한 어린이의 감정을 파악하고자 했던 인터뷰 연구의 주요 결과가 발표되었다(Strife, 2012). 해당 연구는 미국의 10세~12세 어린이 50명 대상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는데, 어린이는 환경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소비자, 주민이므로 환경문제의 당사자인 어린이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당사자가 경험하는 현실의 설명과 해석을 위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감정, 우려를 각각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은 환경문제로 인하여 슬픔, 두려움, 분노 등을 느꼈다고 답변하였으며, 연구자들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을 통해 제공된 부정적인 환경 정보가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스웨덴에서는 17세~19세 청소년이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유형의 의사소통 전략을 확인하였다(Ojala & Bengtsson, 2019). 해당 연구에서는 인간의 무력함이나 절망적인 결과에 주목하거나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어머니·아버지·친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부정적 의사소통이 기후변화로 인해 자신의 삶에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기후변화에 관하여 상관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는 기후변화 문제와 실제 청년 간의 관계에 당사자들의 인식, 경험, 감정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앞선 두 개의 연구에서 어린이·청소년에 주목하였다면, 10개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주요 대상을 20대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한다(Hickman et al., 2021). 해당 연구는 나이지리아, 미국, 브라질, 영국, 인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호주의 16세~25세 각 1,000명씩 총 10,000명에게 기후변화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을 질문하였는데, 약 66.7%의 참여자가 기후변화로 인해 슬픔을 경험한다고 답변하였고, 61.8%는 불안, 67.3%는 두려움, 56.8%는 분

노를 경험한다고 답변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청년들이 현재 기후변화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Hickman et al., 2021). 또한, 누스바움(Nussbaum, 1995)의 논의에서 객체의 경험과 감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주관성 거부(denial of subjectivity)’는 대상화에 해당한다. 한국의 청년세대 담론에서 청년은 외부 해석자에 의하여 재구성되는 해석 대상의 자리에 놓임으로써 타자화되기도 한다(김선기, 2016). 따라서 한국 청년 당사자의 인식에 주목한 기후변화 논의는 우리 사회에 실재하는 청년들의 경험이나 감정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탈대상화이고, 당사자의 언어로 발화된 이야기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들에 주목한 기존 논의를 더욱 풍요롭게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청년들의 감정과 인식을 당사자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했다.

3. 연구방법

1) 연구설계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청년들의 감정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량적 자료 수집 방법인 설문조사와 정성적 자료 수집 방법인 초점 집단 토론을 함께 적용하는 혼합 방법(mixed methods)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접근에는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하였다. 먼저 ‘청년’을 이야기할 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실재하는 청년들과의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성이나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김선기, 2016). 따라서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이나 감정을 당사자인 한국의 청년들에게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자료수집 방법을 선택하되, 설문조사로 주요 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한 뒤 초점 집단 인터뷰로 결과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했다.

정량적 자료 수집 방법과 정성적 자료 수집 방법을 함께 적용하는 혼합 방법은 다른 유형의 자료를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Bryman, 2006). 여기서 통합이란 각 유형의 자료 분석 결과로 서로 다른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료를 서로 연결하여 더 향상된 결과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한다(Bryman, 2007). 혼합 방법의 목적은 매우 다양하지만(Greene, Caracelli, & Graham, 1989), 본 연구는 상보성(complementarity)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상보성 목적의 혼합 방법은 하나의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다른 방법의 결과로 정교화·향상 설명하는 것으로, 두 가지 유형의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측정하려는 현상을 더

욱 풍부하고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다(Greene et al., 1989). 이 연구는 청년에 관한 지식이 당사자 스스로 발화한 내용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해석자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타자화를 경계하고자 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청년의 감정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해당 결과의 맥락에 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Couldry, 2010)를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 기반의 초점 집단 토론(Focus Group Discussion)을 진행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1) 설문조사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청년의 감정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Hickman et al., 2021)에서 사용한 문항 가운데 일부를 차용하였다. 해당 연구는 10개국 16세~25세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감정과 인식을 질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차용한 23개의 문항은 기후변화에 의한 감정(15개 문항),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인식(7개 문항), 기후변화 관련 대화 시도에서 다른 사람의 반응(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항의 내용은 연구자 중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1인에 의하여 번역되었고, 환경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국제 사업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에 의한 검토와 제안을 토대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 스스로 발화한 내용으로 당사자의 감정과 인식을 살펴보고자 했으나, 선행연구(Hickman et al., 2021)는 설문조사에 폐쇄형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폐쇄형 문항이 참여자에게 선입견을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방형 문항을 별도로 배치하였다. 개방형 문항은 평소 기후변화에 대해 경험하는 감정을 묻는 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개방형 문항으로 자신들이 경험하는 감정을 먼저 답변한 뒤 폐쇄형 문항에 순서대로 답변하였다.

폐쇄형 문항 가운데, 기후변화에 의한 감정은 '기후변화로 인해 나는 슬픔을 느낀다'를 포함하여 무기력함, 불안, 두려움, 낙관(긍정) 등을 배치한 15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해당 문항은 '그렇다'를 1점으로, '아니다'를 2점으로, '답변하고 싶지 않다'를 3점으로 설정한 명목 척도를 적용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다가오는 미래가 무섭다', '우리 가족의 안전(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다'를 포함한 7개 문항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렇다'를 1점으로, '아니다'를 2점으로, '답변하고 싶지 않다'를 3점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관련 대화 시도에서 다른 사람의 반응은 '내가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했다'라는 1개 문항을 배치하였으며, '그렇다'를 1점으로, '아니다'를 2점으로, '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

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를 3점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전문조사업체 패널 대상으로 만 19세~34세⁴⁾에 해당하는 청년 500명을 거주 지역, 연령(5세 단위), 성별 기준 비례 할당 표집으로 모집하였으며, 2023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 수집한 자료의 연구 목적 사용, 설문 내용 및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등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였고, 모든 문항에 답변한 이후 '제출'을 누름으로써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남성 262명(52.4%), 여성 238명(47.6%)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 평균은 28.06(SD = 4.46)이었다. 거주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137명, 27.4%), 서울(110명, 22.0%), 부산(31명, 6.2%), 인천(30명, 6.0%)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설문조사 자료 분석은 SPSS와 R 4.1.1을 함께 사용하였다. 명목 척도의 빈도와 비율, 기술통계 등에는 SPSS를 사용하였고, 개방형 문항의 답변은 R 4.1.1의 KoNLP 패키지를 활용한 텍스트마이닝(text-mining)⁵⁾으로 출현 단어의 빈도를 확인하였다.

(2) 초점 집단 토론(Focus Group Discussion)

설문조사 이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하는 초점 집단 토론을 진행하였다. 초점 집단 토론은 특정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화식 토론으로, 사전에 참여를 결정한 사람들이 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대화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밝히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다(Hennink, 2013). 초점 집단 토론의 적용에는 다음의 세 가지 사안을 고려하였다. 먼저 기후변화에 관한 감정과 인식을 살펴보는 설문조사만으로 결과의 맥락까지 깊이 있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의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 명확성, 깊이, 답변의 세부 사항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초점 집단 토론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500명이라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표본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초점 집단 토론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했다. 더 나아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자의 시각에만 의존하여 해석하고 결론 짓기보다 청년 당사자들의 진술을 정성적 자료로 수집하여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에 반영하고자 했다.

4) 청년은 매우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 제3조 1항을 참고하였다.

5) R 패키지 KoNLP의 형태소분석기 SimplePos09를 부착하여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개방형 문항 답변 자료에 출현하는 어근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게, '~할, '~해서, '~하다, ~하면, '~스럽고' 등의 어미를 전처리하였고, 두 글자 이상인 단어를 추출한 뒤 출현 빈도를 확인하였다.

초점 집단 토론 설계 과정에서 연구대상을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평소 환경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사전 검토한 결과, '나는 평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문장에 대하여 리커트 7점 척도를 적용한 1개 문항의 전체 표본 평균값($m = 4.56$) 기준으로 고·저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 나는 슬픔을 느낀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는 불안을 느낀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는 분노를 느낀다', 기후변화 관련 대화 시도에서 다른 사람의 반응 등에 관하여 크래머 V 계수가 유의미하였다($p < .001$). 이에 따라, 초점 집단 토론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집단 A)과 그렇지 않은 청년(집단 B)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for Participants on Focus Group Interview

구분	성별	연령	최근 1년간 환경 활동 참여 경험					
			강연/세미나	자원봉사	청원서 서명	단체 기부	항의 집회	
집단 A	A-1	여성	27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A-2	남성	21세	해당없음	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A-3	여성	32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A-4	남성	32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A-5	여성	25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집단 B	B-1	여성	24세	3	2	3	5	1
	B-2	여성	21세	3	2	3	해당없음	해당없음
	B-3	여성	32세	5	4	4	2	2
	B-4	남성	34세	5	3	4	3	4

Note.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들의 직업은 공무원, 학생, 교사, 사무직, 무직 등이었으며, 거주 지역은 서울과 인천이었다. 최근 1년간 환경 활동 참여 경험은 각 항목에 대하여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다'를 1점으로, '1년에 1회 이상~6개월에 1회 미만'을 2점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미만'을 3점으로, '3개월에 1회 이상~한 달에 1회 미만'을 4점으로, '한 달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함'을 5점으로 설정한 문항에 자기 기입식으로 답변하였다.

초점 집단 토론의 첫 번째 집단은 최근 1년 이내에 환경 관련 강연, 세미나, 자원봉사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만 34세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남성: 1명, 여성: 3명), 환경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인 '재단법인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의 담당자를 통해 모집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최근 1년간 환경 관련 강연, 세미나,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만 19세~만 34세 5명으로 구성되었고(남성: 2명, 여성: 3명), 이들은 설문조사와 무관한 다른 전

문조사업체를 통해 모집하였다. 초점 집단 토론은 2024년 3월 서울시 소재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같은 날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초점 집단 토론에 참여하기 전 연구의 목적, 참여자 규모, 연구 진행 과정, 연구 결과의 열람 여부, 참여 의사 철회, 참여자 보호의 책임, 비밀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연구대상자 설명서를 확인한 뒤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 연구진 가운데 1명이 중재자로 참여한 초점 집단 토론의 소요 시간은 집단 A 약 90분, 집단 B 약 120분이었으며, 토론 종료 후 모든 내용을 전사한 뒤 분석에 반영하였다.

4. 연구결과

1) 설문조사 결과

〈Table 2〉는 기후변화에 관한 감정과 인식을 살펴본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을 질문하였던 개방형 문항의 답변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심각'이었고 '걱정', '체감', '불안', '두려움' 등의 단어도 자주 사용되었다. 주목할 만한 지점은 기후변화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을 파악하고자 했던 개방형 문항 답변에서 상황, 상태, 경험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각'이나 '체감'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 외에,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감정 단어(박인주·민경환, 2005)에 포함되어 있고 불쾌함 차원에 해당하는 '걱정', '불안', '두려움' 등도 자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에 의한 감정을 폐쇄형 문항으로 제시하였을 때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제시된 감정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슬픔', '죄책감', '무력함'을 경험한다는 답변 비율도 다른 감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비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감정은 '낙관(긍정)'이었다. 즉, 본 연구의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87.8%에 해당하는 439명은 '기후변화로 인해 낙관(긍정)을 느낀다'는 문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해당 결과는 '무관심'에 대한 비동의 비율(74.0%), '절망'에 대한 비동의 비율(75.2%)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무관심, 절망, 우울함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 그리고 낙관(긍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인식의 경우,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사람들이 지구를 돌보는 데 실패했다($n = 333, 66.6\%$)', '우리 가족의 안전(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다($n = 314, 62.8\%$)', '다가오는 미래가 무섭다($n = 307, 61.4\%$)', '부모 세대와 같은 기회를 갖지

Table 2. Results of the Survey for Emotions and Perceptions on Climate Change

1. 기후변화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 (개방형 문항 답변의 출현 빈도 상위 10개 단어) ⁶⁾				
심각(55)	걱정(38)	체감(24)	두려움(10)	위험(9)
파괴(9)	급격(7)	부정적(7)	불편(6)	무력(5)
2. 기후변화로 인한 감정 (폐쇄형 문항 답변의 빈도와 비율)				
문항	그렇다	아니다	답변하고 싶지 않다.	
불안	324 (64.8%)	164 (32.8%)	12 (2.4%)	
두려움	296 (59.2%)	192 (38.4%)	12 (2.4%)	
슬픔	248 (49.6%)	238 (47.6%)	14 (2.8%)	
좌책감	223 (44.6%)	260 (52.0%)	17 (3.4%)	
무력함	198 (39.6%)	289 (57.8%)	13 (2.6%)	
부끄러움	174 (34.8%)	312 (62.4%)	14 (2.8%)	
무기력함	162 (32.4%)	325 (65.0%)	13 (2.6%)	
일상생활 영향	160 (32.0%)	317 (63.4%)	23 (4.6%)	
이름	157 (31.4%)	329 (65.8%)	14 (2.8%)	
분노	149 (29.8%)	334 (66.8%)	17 (3.4%)	
비탄(비통함)	131 (26.2%)	349 (69.8%)	20 (4.0%)	
우울함	119 (23.8%)	356 (71.2%)	25 (5.0%)	
절망	109 (21.8%)	376 (75.2%)	15 (3.0%)	
무관심함	107 (21.4%)	370 (74.0%)	13 (2.6%)	
낙관(긍정)	49 (9.8%)	439 (87.8%)	12 (2.4%)	
3.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인식				
문항	그렇다	아니다	답변하고 싶지 않다	
사람들은 지구를 돌보는 데 실패했다.	333 (66.6%)	144 (28.8%)	23 (4.6%)	
우리 가족의 안전(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다.	314 (62.8%)	166 (33.2%)	20 (4.0%)	
다가오는 미래가 무섭다.	307 (61.4%)	179 (35.8%)	14 (2.8%)	
부모 세대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295 (59.0%)	184 (36.8%)	21 (4.2%)	
인간의 운명이 다했다 (피할 수 없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	255 (51.0%)	225 (45.0%)	20 (4.0%)	
내가 가장 소중한 여기는 것들은 파괴될 것이다.	254 (50.8%)	222 (44.4%)	24 (4.8%)	
아이를 갖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189 (37.8%)	271 (54.2%)	40 (8.0%)	
4.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했다.				
그렇다	아니다	기후변화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78 (15.6%)	222 (44.4%)	200 (40.0%)		

못할 것이다($n = 295, 59.0\%$)’ 등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답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반면,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했다’라는 문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n = 222, 44.4\%$)과 기후변화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n = 200, 40.0\%$)는 답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 차이로 인해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10개국 대상 조사 결과(Hickman et al., 2021)를 보면 해당 문항의 답변은 ‘그렇다’ 혹은 ‘아니다’ 중심으로 구성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에서 실시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기후변화 관련 대화 시도에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질문하였던 문항의 답변은 ‘아니다’ 혹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결과에 대하여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하였다. 첫 번째 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을 질문하였을 때 ‘심각’이나 ‘체감’처럼 상황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이 외에 기후변화로 인해 경험하는 주요 감정으로 ‘불안’이나 ‘두려움’ 등이 지목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의한 감정 가운데 ‘낙관(긍정)’에 관하여 비동의의 비율이 가장 높고 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관련 대화 시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 자세한 맥락을 청취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결과를 제시한 뒤 각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환경 관련 활동 참여 경험 기준으로 구분한 2개의 집단 대상으로 초점 집단 토론을 진행하였다.

2) 기후변화를 향한 감정과 인식

(1) ‘심각’과 ‘체감’에 멈춰 선 기후변화 이야기

기후변화로 인한 감정을 질문하였을 때 ‘심각’, ‘걱정’, ‘체감’, ‘불안’, ‘두려움’ 등이 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하며 이러한 결과가 자신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주변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기온의 변화, 자연재해, 짧아지는 계절, 미세먼지로 인한 외부 활동 제한 등을 경험하면서 기후변화의 ‘심

6) 총 823개의 출현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기후변화’, ‘생각’, ‘변화’, ‘심각’, ‘기후’, ‘지구’, ‘걱정’, ‘날씨’, ‘어름’ 순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기후변화를 향한 감정과 인식을 살펴보고자 했으므로, ‘기후변화’, ‘생각’, ‘변화’ 등 연구 주제에 의해 등장한 단어 ‘지구’, ‘날씨’, ‘어름’처럼 연구 주제와 관련 없는 단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함을 ‘체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개방형 문항을 제시하였던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섭게, 예측하기 어렵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위험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례적인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설문조사 참여자 24, 32세, 남성, 대구 거주

“선선한 날씨가 줄어들고 극단적인 더위와 추위가 지속될 때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설문조사 참여자 90, 20세, 여성, 충청북도 거주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여름에는 무더워지고, 겨울에는 최강 한파가 들이닥쳐 봄, 가을의 선선함을 온전히 느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설문조사 참여자 462, 24세, 남성, 경기도 거주

“고향 집에서 사과 과수원을 하는데 올해는 날씨가 이상해서 꽃피는 시기에 별도 별로 안 보이고 과일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열린 과일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기후변화가 안 좋은쪽으로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느낌. 이외에 올 여름 날씨가 동남아 스콜처럼 비가 갑자기 소나기로 미친듯이 퍼붓다 그치고 온도가 엄청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됨.” - 설문조사 참여자 49, 32세, 여성, 부산 거주

“저는 (설문조사 결과에) 동의하고, 여기서 특히 심각이나 체감이 좀 외닿는데 작년쯤부터 계절의 변화 같은 게 되게 기온의 변화나 이런 게 엄청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런 게. 그리고 봄이나 가을 같은 게 엄청 짧잖아요.”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A-1, 27세, 여성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초임 때는 이런 미세먼지라는 개념이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 차 정도가 되니까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 변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 설문조사에 따른 심각 걱정 체감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좀 외닿는 부분이기도 해요.”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A-3, 32세, 여성

흥미로운 점은,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가운데 환경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않은 청년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A)은 '심각', '체감', '걱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환경 활동에 자주 참여한 청년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B)에서는 '불안'이나 '두려움'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경험하는 감정에 다양한 맥락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심각', '체감', '걱정' 등은 일상생활 속 변화를 직접 경험한 결과이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거나 해결하고 싶어도 뚜렷한 방법이나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느낄 때 불안이나 두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가 10대 시절에 느꼈던 가을의 길이라든지 시기랑 20대가 돼서 느끼는 시기랑 체감상으로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체감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힌트(hint)가 잘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확신이 잘 서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좀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불안, 두려움, 심각, 걱정 이게 다 한 가지 '막연함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B-1, 24세, 여성

“기후변화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 안에 있다 보니까 감정처럼 체감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변화하는 과정 선상에 있는데 내가 이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이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주역이 아닐 수도 있고,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냥 심각하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 길로 가고 있다는 거는 모두가 다 보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이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다고 '내가 들어가서 나 혼자 해서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무력감도 들고. (중략) 저는 '분노랑 슬픔을 나 같으면 추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B-3, 32세, 여성

“사실 저의 핵심 감정은 개인 특성일 수도 있지만 분노거든요. (중략) (참여자 B-3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과정 중에 있고, 또 우리가 주역이라고 표현하신, 플레이어(player)로 있느냐 혹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에 내가 개입해서 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무력감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커질지 아니면 조금 더 분노 혹은 이제 바꾸고자 하는 열망, 이런 다른 감정이 끼어들어 울지가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 초

점 집단 토론 참여자 B-4, 남성, 34세

“(참여자 B-4의 답변 이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애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 질문으로 ‘근데 2050년 되면 다 우리가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된다는데 저 죽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아니요’라고 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아니요’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 그러면 너무 슬퍼져요. 나도 이게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그러면 랜덤(random)으로 다들 위험에 처할 걸 아는데, 무력감과 슬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답답하니까 하고 있는데, (중략) 결국에는 안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슬픔이 더, 이제 분노에서 넘어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심각, 걱정, 체감, 불안, 두려움은 초반에 겪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낼 수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느끼고, 그런데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더 근본적인 감정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B-3, 32세, 여성

집단 B에서 기후변화의 해결 방법이나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면, 집단 A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에서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필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이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무감각해지거나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은 집단 B의 참여자들이 언급하였던 기후변화의 해결 방법이나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인식과 이어진다. 즉, 기후변화 논의가 체감 여부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에 머무를 경우, 정작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희망 등은 논의하지 못한 채 부정적인 미래만을 강조하는 데 그칠 수 있다.

“오히려 매체에서 너무 많이 언급하니까 심각함을 앎과 동시에 좀 계속 얘기가 들려오니까 익숙해진 것도 있고, 기후변화 자체에. 그리고 워낙에 산업은 계속 발달하고 있고 환경오염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기후변화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A-5, 25세, 여성

“미디어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내용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 설문조사 참여자 183, 32세, 남성, 서울 거주

“언론에서는 곧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얘기하곤 하는데 소신 발언으로는 호들갑 내지 공포
조장도 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라 자극적으로 써야 조회 수가 잘 뿔뿔)” -
설문조사 참여자 99, 28세, 남성, 경기도 거주

(2) 기후변화 완화 가능성의 부재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희망 등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미래만 강조하
는 것은 기후변화에 관하여 낙관(긍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의견은 환경 관
련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은 청년으로 구성된 집단(A)의 답변, 그리고 설문조사의 개방형 문항
답변을 통해 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언론보도, 유튜브 동영상, SF 영화 등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자주 접하였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이후의 낙관적인 결
과 등은 듣거나 경험하지 못하였으므로 기후변화 역시 낙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저는 희망적인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환경오염이 더 가속화됐으면 가속화됐지 좋아지지
는 않으니깐, 그래서 지구 온난화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표현을 들어봤거나,
아니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질문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를
여쭙봐도 괜찮을까요?) ‘기후변화가 좋아지고 있다’를 다룬 언론이나 기사나 유튜브나 그
런 걸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좋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
본 적이 없고, 제가 느끼기에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요즘만큼 날씨의 변덕
이 기온 차도 변덕이 심하고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진다고 체감하지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A-5, 25세, 여성

“SF 영화를 본다든가 (하면), 사실 어차피 지구는 조금씩 망가져 가고 있고. 왜냐하면 제
가 경영학을 전공하는데 요즘 환경 관련된 게 자꾸 이슈(issue)가 되어서 가끔 보는데, 이
미 일정 임계점까지는 예정이 돼 있고, 우리가 여기서 뭘 더 한다고 이걸 낮출 수 있는 건
아니고 늦추는 건데, 사실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막 건드리지 못한다고 보면, 과
연 어디까지 갈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A-2, 21
세, 남성

“재난영화 속 일들이 현실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매우 걱정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뉴
스만 보아도 느껴진다.” - 설문조사 참여자 487, 31세, 여성, 인천 거주

“부정적인 감정들만 생긴다. 기후변화가 생기는 이유들에 대한 기사와 뉴스들을 보게 되면 좋은 방향의 기후변화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 설문조사 참여자 192, 21세, 여성, 서울 거주

다른 한 편으로,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들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낙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견은 앞서 언급하였던 기후변화 대응 행동 이후 낙관적인 결과의 부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정책, 공동의 노력이 꾸준히 실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조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최근에도 계속 기후변화가 안 좋으니까 자연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기차도 도입을 하고, 한국에서는 일회용품을 이제 카페에서 사용하지 말자는 법안이 도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고객들이 안 가니까 시장 경제가 꺼서 다 철회하고. 전기차 도입도 유럽에서 25년까지 전부 다 전기차로 도입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것도 철회를 했고”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A-4, 32세, 남성

“성인으로서 (아이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막상 저 같은 경우에도 텀블러 갖고 가면은 300원 할인해주고 근데 막상 귀찮아서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저조차도 귀찮아서 안 하다 보니 이게 기후변화가 막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다가오기는 힘들겠구나, 그런 인식이 이렇게 고착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A-3, 32세, 여성

“나 개인이 해서 될 게 아니라 모두가 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되는 건데, 나만의 생각으로 이게 되는 걸까 싶은 그런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A-1, 27세, 여성

환경 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집단(B)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나는 낙관(긍정)을 느낀다’라는 문장에 88%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결과에 대하여 “나머지 12%는 그렇다고 한 건가요?(참여자 B-2)”라는 반문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참여자들은 집단 A와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그렇다’는 답변의 맥

락을 추론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문제는 앞으로 꾸준히 안고 가야 할 사안이므로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저는 12%가 ‘그렇다’라고 했다는 게 가장 신기한데요. 저는 ‘그렇다’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낙관이 될까요? (중략)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는 예상보다는 ‘그렇다’라고 하신 분이 많긴 하네요. (질문자: 이유를 여쭙봐도 될까요?) 기후변화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에스펙트 (aspect, 측면)를 못 찾겠어요.”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B-1, 24세, 여성

“낙관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의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뭐 기후 테크 같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중략)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기후변화 문제가 정말 제가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제가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평생을 안고 살아갈 이 문제를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만으로 대하고 싶지 않아서. 뭔가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기후변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부정 100%는 아닌 편입니다.”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B-2, 21세, 여성

“이 질문이 일단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후변화로 인해라는 부분을 기후변화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다른 참여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의 어떤 해법, 이게 해결될 거야 아니면 뭐 해결될 수 있어, 기후 테크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발전해서 이 해결 가능성에 대한 낙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중략)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생각해보면 계속 이걸 부정적으로 ‘해결 안 될 거야, 아니면 너무 막막해,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살기 힘들거나 마음이 어려워니까 ‘예’라고 답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B-4, 34세, 남성

‘해결 가능성에 대한 낙관’, 즉 기후변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거나 기후변화 자체를 완화할 가능성에 의해 발생하는 낙관은 환경 관련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은 청년으로 구성된 집단(A)의 후속 답변에도 등장하였다. 참여자들은 특히 정부나 기업을 통한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소식을 접하거나, 정책 등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강력한 규제 정책 등을 실시한다면 기후변화를 낙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세우겠다, 이런 것들이 보도되면 그걸 보고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고, 그만큼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수도 있고 해서, 뭔가 그런 프로젝트가 생기면은 조금 낙관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중략) (질문자: 대기업이나 정부를 언급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개개인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전문 인력과 자원이 들어가야 좀 더 프로젝트 추진이 원활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A-5, 25세, 여성

“저는 막 정부, 그러니까 대기업, 정부,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누가 방법을 좀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렇게 실행은 할 수 있겠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정책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좀 강제할 수 있는. (중략) 진짜 한다면 제대로 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A-1, 27세, 여성

(3)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참여자 B-3)”

기후변화 관련 대화 시도에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질문하였을 때, ‘기후변화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은 초점 집단 토론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한 주제였다. 먼저 환경 관련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은 청년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 (A)은 “당연히 저희는 3번(기후변화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이 주류(참여자 A-5)”라고 답변하며, 이미 진행되고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기후변화를 주제로 대화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기후변화, 나 혼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진행되고 있어’, 약간 저출산 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어’, ‘내가 손댈 수 없어’ 하니까 대화 주제로도 선택이 안 되는 거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꺼리도 안 되는 거예요.”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A-5, 25세, 여성

“사실 저도 이걸 막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은 있을

수 있어도, 사실 저희가 대화할 때 있어서 굳이 예견된 부정적인 얘기를 굳이 하지는 않으려 하잖아요. 좋은 일이나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더 좋지, 굳이 가서 ‘기후변화가 좀 심각하지 않니’ 이러면 뭐랄까, 살짝 친구들 사이에서 정치 얘기하지 않는다는 느낌처럼. 정치 얘기하면 사실 견해도 다르고 견해가 같아봤자 별로 좋은 얘기도 안 나오고. 사실 좀 기후변화가 대책이 명확하게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대책이 효과적이라면 뭐 이야기에 있어서 좀 건설적인 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소모적이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즘 뭐라 할까, 사람들이 진지한 것에 대한 대화를 좀 힘들어한다, 무거워한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기후변화라는 건 좀 헤비(heavy, 무거운)한 주제가 아닌가, 그걸 좀 선블리 내뱉기도 그렇고”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A-2, 21세, 남성

반면, 환경 관련 활동에 자주 참여한 청년으로 구성된 집단(B)의 토론은 “저는 이 질문이 마음이 아픕니다(참여자 B-1)”라는 답변으로 시작됐다. 참여자들은 기후변화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였을 때 “특이한 사람처럼 조명(참여자 B-3)”되거나, “잔소리를 하는 사람(참여자 B-1)”이 되거나, “어디를 갈 때마다 제 눈치를 보는(참여자 B-3)” 상황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했고, 이로 인해 대화를 시도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저도 만약에 이 선택지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지 않는다’에 답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그냥 친구들을 만났을 때 잠깐 스몰토크(small-talk)로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더 깊게 가져가기엔 약간 남들이 회피하는 주제라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물론 근데 그제 저는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략) 싸움은 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중략) 근데 사람들이 이것(기후변화에 관심이 있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것)을 드러냈을 때 공격을 받거나 저 사람 특이하더라는 식으로 조명이 되니까. 괜히 나도 이걸 얘기를 하면 특이한 사람처럼 조명이 되지 않을까”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B-3, 32세, 여성

“저는 이 질문이 마음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참여자 B-3이) 말씀하신 거랑 맞닿아 있어요.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B-3: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친구들한테도 안 하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도 안 하거든요.”

테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어머니는 아세요. 제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거 관련해서 석사 논문 준비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데, 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세요. 집에서 랩 하나 쓰는데, 반찬 랩 이렇게 덮잖아요, 그거를 딱 뜯으시면서 ‘근데 이게 더 편해서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전 그걸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제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이 문장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네요.”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B-1, 24세, 여성

“(참여자 B-1의 답변 이후) 저도 지금 얘기하시니까,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사람들에게 제가 비건(vegan)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소고기를 안 좋아해요, 안 먹어요, 그냥 굳이 소고기가 꼭 먹어야되는 것도 아니고 비싸기도 하고. (중략)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야 너는 채식주의자다, 아니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지향을 하는 거지 먹기는 먹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디를 갈 때마다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 고기인데 괜찮아요? 그러면 옆에 계란찜 있으니까 계란찜이랑 된장국이랑 먹어요’, 근데 제가 아예 안 먹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도 가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걸 말하는 순간, ‘나는 고기를 안 먹어요’ 얘기를 하는 순간, (중략)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이 남거나 쓰레기가 있는 것(이 더 안좋다고 생각해서), 소고기가 남으면 먹을 거예요. 근데 이걸 먹는 순간 ‘재 소고기 먹으면서 왜 저러지라고 되니까, 저는 근데 그걸 먹는 게 맛있어서라기보다는 남아서 그냥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먹는 건 괜찮은데’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B-3, 32세, 여성

참여자 B-1은 기후변화에 관한 대화를 시도하거나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밝혔을 때 ‘완벽주의’로 귀결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참여자 B-4 역시 해당 의견에 동의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자신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가벼운 에피소드를 주제로 대화하였을 때 이어질 타인의 시선을 우려한다고 답변하였다.

“모든 게 완벽주의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요? 투영을 하기도 하고요, 완벽한 환경운동가를. 그리고 듣는 사람한테도 이제 완벽함을 투영하게 되기도 하고요, 제 입장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약간 특수성일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말 자체가. 뭘 하면 완벽해야되는, 뭘 하면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약간의 신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무시를 받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는 외국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은 알거든요. 비건에도 참 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액션(action)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환경 보호에 가깝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B-1, 24세, 여성

“완벽주의지든 완벽주의든 어떤 시선?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리고 ‘얘기한다고 바뀔까?’ 이런 것도 약간 있는 거고. 실제로 차라리 내가 실천을 좀 더 하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든, 아니면 뭐 좀 더 이야기나 에피소드, 가볍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뭔가 기후변화 전도사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회피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이 어떻게 비철가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효과성에 대한 불신? 혹은 ‘아마 이렇게 설득한다고 나 싫어하거나 선입견만 가지고 보지, 이 사람이 설득되거나 이거 가지고 바뀔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질문에 있는 것처럼 무시 당하기 싫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B-4, 34세, 남성

이는 ‘부정적인 반응 혹은 결과가 예상되어 대화를 시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단 A의 참여자 중심으로 확인된 의견과 유사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대화에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먼저 기후변화 자체의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어 기후변화에 관한 대화를 시도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대화의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되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 관련 대화의 부정적인 반응을 우려하던 집단 B 참여자들의 예상과 달리, 환경 관련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은 집단 A의 참여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고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주제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모를 것 같은 주제는 아예 대화의 주제로도 산정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A-5, 25세, 여성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대방이랑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 토픽 자체가 그냥 아예 그 범주 안에 없어요.”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A-3, 32세, 여성

“떠들려고 하면 제가 뭘 알아야지 같이 핑퐁이 되는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알아야지 이제 뭔가 ‘공감이 된다’ 아니면 ‘나는 의견이 다르다’라고 이제 의견을 줄 수가 있는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해당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 상대방이 잘 안다고 쳐도 ‘대화가 될까’라는 생각.”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A-4, 32세, 남성

의견 불일치나 기후변화에 관하여 잘 모르는 부분을 우려하던 집단 A 참여자들의 예상과 달리, 집단 B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기후변화에 관한 토론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 지점은 직전에 언급한 내용과 대비되면서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대화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들을 보여준다. 즉, 환경 관련 활동에 자주 참여한 청년으로 구성된 집단(B)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대화의 부정적 반응을 우려하였으나, 환경 관련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은 청년으로 구성된 집단(A)은 ‘아는 게 없어서 대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답변하였다. 반면, 환경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청년으로 구성된 집단(A)에서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하였으나, 환경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집단(B)에서는 오히려 기후변화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미국의 선라이즈 무브먼트(sunrise movement), 이런 청년 기후단체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성소수자 이런 거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서 얘기하고 이래서 그 사람이 설득되기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이랑 지형도 다르고 더 아파트 중심이고 다 다르지만, (중략)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막 온라인에서 키배(keyboard battle, 온라인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마치 싸움을 하는 것처럼 진행되는 말다툼을 가리키는 은어) 뜨는 거 아닌 이상, 약간 그 문화 자체가 없어진다? 개인주의적인? 그것도 좀 작용하지 않나” - 초점 집단 토론 참

여자 B-4, 34세, 남성

“(참여자 B-4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토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 흔한 일이니까”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B-2, 21세, 여성

“(참여자 B-2의 의견에 이어서) 아니면 그냥 수업 시간에 이겨야 돼, 약간”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B-4, 34세, 남성

“(참여자 B-4의 의견에 이어서) 맞아요, 정확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나면, 토론이 의견을 나누는 장이 아니라 약간 전쟁터 같아요, 이게 승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의견은. 그러다 보니까 ‘기후 행동’이다 그러면 완벽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약간 이 불법적인 사고가 자꾸 이렇게 번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면 행동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약간 지금 느끼는 청년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입체적인 의견의 본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너무 커져서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남아 있는 거. 그걸 입체적이라고 표현을 해 봤어요.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B-1, 24세, 여성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정말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토론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화가 잘 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근데 많은 청년이 좀 더 그런 자유로운 의견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는 걸 원한다고 생각해요.” -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 B-2, 21세, 여성

Table 3. Results of Focus Group Discussion

주제	집단 A (최근 1년간 환경 관련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음)	집단 B (최근 1년간 환경 관련 활동에 자주 참여함)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 감정 (심각, 체감, 불안, 두려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속 기온 변화, 자연재해, 짧아지는 계절, 미세먼지로 인한 외부 활동 제한 등을 경험하면서 기후변화의 '심각함'을 '체감'함 -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미디어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무감각해지거나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 체감, 걱정 등은 일상생활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결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거나 해결하고 싶어도 뚜렷한 방법이나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느낄 때 '불안'이나 '두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핵심 감정에는 '분노'나 '슬픔'이 반영될 수 있음
기후변화에 대해 낙관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자주 접하였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이후의 낙관적인 결과 등은 듣거나 경험하지 못하였으므로 낙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움 -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낙관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기후변화는 꾸준히 안고 가야 할 사안이므로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낙관'이라는 감정은 기후변화 상황 자체를 향할 수도 있지만, 기후변화 해결 가능성에 대한 낙관을 가리킬 수도 있음
기후변화 주제의 대화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진행되고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기후변화를 주제로 대화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임 - 기후변화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주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였을 때 특이한 사람 혹은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하면서 대화를 시도하기 어려워짐 - 기후변화에 관하여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가벼운 에피소드를 주제로 대화하였을 때 이어질 타인의 시선을 우려 -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로 인해 기후변화 주제의 대화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한국의 기후변화 논의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청취하려는 시도, 특히 한국 청년들의 감정과 인식에 주목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청년들의 감정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초점 집단 토론을 함께 적용한 혼합 방법으로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9세~만 34세 5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청년 9명 대상 초점 집단 토론을 각각 진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 위주로 언급되었고, 이러한 감정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하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즉,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을 질문하였던 폐쇄형 문항

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개방형 문항 답변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언급되었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맥락은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들의 답변을 통해 청취할 수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거나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 혹은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걱정하면서도 기후변화 혹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질 때 불안이나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기후 불안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던 선행연구(Clayton, 2020)를 통해 논의되기도 했다. 클레이턴(Clayton, 2020)에 따르면,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인 기후변화는 인간에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여전히 진행 중인 문제이므로 간단히 적응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인간에게 기후변화는 불확실한 개념이자 현상이고, 부정적인 결과와 목표 충돌이 예상될 때 발생하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인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연결되기 쉽다. 기후변화로 인한 감정은 불안, 절망, 분노, 슬픔 등도 논의할 수 있지만, 특히 불안이라는 감정은 걱정(worry)과 우려(concern)를 반영하기도 한다(Clayton, 2020). 클레이턴은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젊은 성인(young adults) 사이에서 만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청년들로부터 도출한 결과로 선행연구를 뒷받침함과 동시에, 한국의 청년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경험하는 맥락까지 함께 청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 결과 가운데, 뉴스나 영화를 포함한 미디어는 기후변화에 관한 주요 정보를 얻는 정보원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새삼스러운 점은 미디어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단순한 정보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획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에서 개방형 문항과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게 되지만 주로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접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만을 경험하는 데서 그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순응하게 되거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미디어 표현에 오히려 익숙해지기도 한다는 답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디어는 어린이 대상 인터뷰를 진행하였던 선행연구에서도 주요 정보원으로 평가받으며(Strife, 2012), 해당 연구에서 70% 이상의 참여자들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공포 감정의 주요 원인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뉴스, 영화를 지목하기도 했다. 해외에서 진행된 실증연구 역시, 환경 문제와 관련된 위협 메시지가 절망감을 불러온 다거나(Vasi & Macy, 2003), 환경커뮤니케이션에서 위협적인 메시지만을 사용한다면 회피나 거부 같은 방어적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밝혀냈다(Weinstein et al., 2015). 특히 웨인스테인과 동료들(Weinstein et al., 2015)은 위협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려면 변화에 대한 믿음과 높은 자기 효능감도 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는 기후변화를 낙관(긍정)하

기 어렵다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어진다. 즉, 기후변화의 심각성만을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오히려 불안이나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관하여 낙관(긍정)하기 어렵다고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하여 낙관(긍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의 해결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야기하기도 했다. 즉, 기후변화에 관하여 낙관(긍정)한다는 것은 기후변화라는 문제 혹은 상황을 향할 수도 있지만,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을 찾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 문제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에 변화에 대한 믿음과 높은 효능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웨인스테인과 동료들(Weinstein et al., 2015)의 논의로 재차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에 관한 낙관(긍정)은 현재 심각성을 체감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나 문제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갈 것이라는 믿음, 혹은 기후변화 상황 자체는 예상하기 어렵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거나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감정 가운데 낙관(긍정)의 비중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들의 의견처럼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향한 낙관(긍정)적 믿음이나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효능감의 부재를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언급하였던 심각성만을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즉,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상황의 심각성만을 강조하는 데 머물렀을 뿐,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의한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 등은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다.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대화 시도에 관하여,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40.0%는 '기후변화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답변하였다.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몇 가지 맥락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각각의 맥락들은 결국 '부정적인 결과 혹은 반응의 예상'과 관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들은 기후변화라는 주제 자체에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므로 대화 주제로 꺼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고, 다른 한 편으로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대화에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되어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들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화를 거부하거나 불편함 혹은 불쾌함을 표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초점집단토론 참여자들 간에 교차하는 몇 가지 오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환경 관련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았던 청년들은 잘 알지 못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인식하였으나, 환경 관련 활동에 자주 참여했던 청년들은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서로 존중하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환경

관련 활동에 자주 참여했던 청년들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대화로 인해 특이한 사람처럼 조롱되거나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는 등 타인의 시선을 우려하였으나, 환경 관련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았던 청년들은 자신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초점집단토론에 참여한 두 집단 모두 기후변화에 관하여 대화를 나눴던 경험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였고, 특히 환경 관련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았던 청년들은 기후변화를 주제로 대화한다는 사실 자체가 생소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환경커뮤니케이션에 심각, 위기, 위험 등을 벗어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커뮤니케이션 연구와 환경 관련 뉴스에서 위험 혹은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하는 경향은 익히 알려져 있다(노진철, 2004; 채영길, 2019). 특히 노진철은 환경 뉴스에 “대재앙과 연계하여 선정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정적 기대구조에 의존하는 경향(96쪽)”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채영길의 논의를 살펴보면 2010년대 후반까지의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 경향 역시 저널리즘과 위험·위기 커뮤니케이션에 치중해왔다. 물론 자연 혹은 자연환경을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으로 논의할 수는 있겠으나, 위험 혹은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으로 본 자연이나 자연환경을 환경커뮤니케이션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에게 위험이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역에 주목하지만(Cottle, 2011), 환경커뮤니케이션에서는 자연을 또 다른 행위자이자 주체로 바라보며 인간-자연 간의 관계를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다(이혜선, 2024; 채영길, 2019; Cox, 2013). 관련하여, 노진철은 특히 환경을 다루는 언론보도에서 부정적인 뉴스에 치중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를 밝혔다. 예를 들면, 언론은 장기적·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긍정적인 요소에 비해, 짧은 시간에 충격적인 피해 현황을 묘사하고 위기의 징후를 기술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확보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선호하기 쉽다. 이때 언론은 부정적인 요소에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사회에 불안을 유포하게 되며, “상업적 경쟁 속에서 쉽게 과장보도 및 선정성과 연계되어 시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역할(노진철, 2004, 98쪽)”을 한다.

심각, 위기, 위험 등을 벗어난 환경커뮤니케이션의 대안은 이 연구의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들이 제공했던 답변을 통해 논의해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해보면, 만 19세~만 34세로 구성된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들은 뉴스나 영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으나 주로 부정적인 요소를 접해왔고, 특히 기후변화 문제의 긍정적인 변화나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 등은 거의 듣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나 방안을 정책에 의해 도입하더라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낙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문제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선에서 변화를 향한 믿음과 높은 자기 효능감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위협적인 메시지는 회피나 거부 등의 방어적 반응을 불러오기도 한다(Weinstein et al., 2015). 따라서 환경커뮤니케이션,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심각성이나 위협 수준의 강조를 넘어 변화를 향한 믿음이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청년들의 감정과 인식을 살펴보고, 불안, 두려움, 낙관(긍정), 기후변화 관련 대화 시도에 관한 주요 결과와 맥락을 복합적으로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환경커뮤니케이션 연구로서, 이 연구는 두 가지 측면의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먼저 가장 큰 의의는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청년 당사자들의 감정과 인식을 조망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에 주목한 기존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은 기후운동이나 기후 커먼즈 등 청년의 정치 참여, 혹은 정치적 주체로서의 청년 위주로 논의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는 직접 청취하기 어려웠고, 특히 기후변화를 향한 한국 청년들의 감정과 인식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9세~만 34세 청년 500명 대상 설문조사로 기후변화를 향한 감정과 인식의 추세를 파악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기반의 초점 집단 토론으로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았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은 다층적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들이 발화한 내용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기후변화와 한국 청년 간의 관계에 정치적 주체로서의 청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향하여 다양한 감정과 인식을 경험하는 청년의 모습들이 혼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를 향한 한국 청년들의 감정과 인식은 단일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복합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청년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를 한국 청년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에게 주목해왔던 기존 '논의'를 확장하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심각', '체감', '불안', '두려움' 등으로 표현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기후변화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모습, 기후변화를 낙관하기 어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기후변화 주체의 대화를 시도하기 어려워하는 모습 등이 혼재되어 있고, 각각의 모습에는 청년들 개개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맥락이 존재함을 이야기해보고자 했다.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은 외부 해석자에 의해 재구성된 정치적 주체로서의 모습 위주로 논의되어왔으나, 이 연구는 기후변화를 향한 한국 청년들의 감정과 인식을 당사자의 이야기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들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다채로운 접근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화이트(White, 2013)는 '세대'라는 표현 자체가

당사자인 개인을 대신하여 제기된 주장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어렵게 만들고, 세대 간의 위계나 권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 문제 속 청년 '세대' 혹은 '미래세대'라는 표현 역시 사회를 질서화하려는 시도이며, 특히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래세대'의 호출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당위를 자신과 닮은 친족관계의 이익 혹은 보호에 호소하는 한계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였다(White, 2017). 이와 같은 세대주의(generationism) 중심의 비판적 성찰 역시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들에 주목하는 환경커뮤니케이션의 공론장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끌어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두 번째 학술적 의의는 환경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를 당사자의 인식과 경험으로 확장하였다는 것이다. 환경커뮤니케이션 연구는 국내·외 모두 환경문제를 다룬 언론보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채영길, 2019; Comfort & Park, 2018). 하지만 환경커뮤니케이션은 인간-자연 간의 관계를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측면뿐 아니라 자연 혹은 자연환경의 재현에 주목하는 구성적 측면을 포함한다(Cox, 2013). 환경커뮤니케이션은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관점 모두를 포함하며, 환경 담론이나 표현 체계뿐 아니라 인간의 묘사와 표현, 과학 정보나 지식의 구성, 장소 기반 자아정체성 등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른다(이혜선, 2024; Cox & Depoe, 2015; Schoenfeld, 1981). 환경문제에 관한 당사자의 인식과 경험, 특히 한국 청년들의 인식과 경험은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에 주목한 기존 연구뿐 아니라 환경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환경커뮤니케이션 연구 범위를 당사자의 인식과 경험으로 확장하고, 기후변화를 향한 한국 청년들의 감정과 인식을 환경커뮤니케이션의 관점으로 살펴본 초창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실천적 측면으로, 이 연구는 부정적 요소에 주목한 기후변화 재현, 특히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이나 위험 수준만을 강조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참여자들과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들 모두 언론보도나 영화 등의 미디어 콘텐츠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부정적 요소를 주로 접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에서 기후변화를 재현할 때 그 심각성이나 피해 현황에 치중해왔음을 의미할 수 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강조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절망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Vasi & Macy, 2003), 위협 메시지는 변화를 향한 믿음과 효능감을 수반할 때 자기방어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Weinstein et al., 2015).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심각성이나 피해 현황만을 강조한 미디어 콘텐츠가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에서 기후변화를 재현하고자 한다면,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참고하여 부정적 요소만을 강조하기보다 변화를 향한 믿음이나 효능감을 강조할 수 있는 재현 방향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관한 환경커뮤니케이션 관점의 지원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2022)에서 강조한 것처럼, 기후변화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특히 불안이나 두려움처럼 기후변화에 의한 정신건강 차원의 부정적 영향은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참여자 구성 과정에서 성별과 거주 지역 기준 할당 표집을 적용하였고,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9세~만 34세 청년 500명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감정과 인식을 질문하였다. 전문조사업체 패널에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나, 참여자 가운데 64.8%는 기후변화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고 59.2%는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답변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젊은 성인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임을 고려할 때(Clayton, 2020),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젊은 성인이 경험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이나 두려움은 걱정(worry), 우려(concern), 부정적인 결과와 목표 충돌의 예상 등을 반영한다(Clayton, 2020). 또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참고할 때 기후변화를 향한 낙관(긍정)은 기후변화라는 문제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 혹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다는 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기후변화라는 환경 요인에 의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임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향한 믿음이나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에 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 역시 제한된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주요 결과를 청년 전반으로 일반화하거나 청년을 향한 고정관념으로 확대할 수 없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 문제 속 한국의 청년들에 주목했던 기존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특히 한국 청년들의 기후변화를 향한 감정과 인식을 조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초점 집단 토론을 함께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주목할 만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그 맥락을 논의하였으나, '청년이 불안해한다'든가 '청년은 기후변화를 주제로 대화하지 않는다' 등의 고정관념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성별, 거주 지역, 직업, 거주 지역의 형태, 어린 시절의 자연환경 경험 등을 기준으로 더 구체적인 맥락을 논의해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훨씬 더 다채롭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가운데,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40%의 참여자에 주목하였지만, 44.4%의 참여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초점 집단 토론 참여자들 역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에 상대적

으로 더 많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긍정적으로 대화를 나눴던 한국 청년들의 경험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긍정적인 대화 경험에 주목한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기후변화를 둘러싼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청년들의 감정과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논의를 확장해보고자 했다. 특히 설문조사와 초점 집단 토론을 함께 적용하는 혼합 방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 두려움, 낙관(긍정)하기 어려움, 그리고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대화를 시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맥락까지 복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청년’이라는 기표에 다양한 기의를 덧입힐 수 있다면, 기후변화와 청년 간의 관계 역시 다양한 측면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 속에서 ‘청년’이라는 기표는 미래를 위한 희망이자 해결사로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기후변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청년’에게 특정 정체성을 부여하고 요구하기보다,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사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본다.

References

- Ahn, S.-R. (2022). Discussion of youth and future generations in the youth climate movement: Implications for the politics of the climate commons. *ECO*, 26(1), 141-177. [안새롬 (2022). 기후 커먼즈 정치에서 청년 및 미래 세대론이 갖는 함의. <환경사회학연구: 에코>, 26권 1호, 141-177.]
- Bourdieu, P.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yman, A. (2006). Integr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How is it done? *Qualitative Research*, 6(1), 97-113.
- Bryman, A. (2007). Barriers to integr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Mixed Methods Research*, 1(1), 8-22.
- Carter, C. (2014). News media and child well-being. In F. C. Asher (Ed.), *Ben-Arieh, handbook of child well-being* (pp. 1979-2011). New York, NY: Springer.
- Chae, Y.-G. (2019). Understanding environmental communication stud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97, 119-152. [채영길 (2019). 국내 환경커뮤니케이션(Environmental Communication)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보>, 97호, 119-152.]
- Choi, S.-M., Yu, H.-E., & Kim, H.-S. (2019).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ife of youths in poverty from a bottom-up perspective. *The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26(2), 32-58. [최상미·유효은·김한성 (2019). 당사자의 목소리로부터의 빈곤 청년의 삶에 대한 탐색. <사회과학연구>, 26권 2호, 32-58.]
- Choi, W.-L. (2021). How the media is coping with the climate crisis. *Kwanhun Journal*, 159, 97-105. [최우리 (2021). 언론,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 <관훈저널>, 159호, 97-105.]
- Choi, W.-L. (2022). Hankyoreh <Climate Change &> interactive production machine: I hope you can find a climate change public forum whenever you think of it. *Newspaper & Broadcasting*, 615, 64-68. Retrieved 6/15/24 from <https://www.kpf.or.kr/synap/skin/doc.html?fn=1646359810046.pdf&rs=/synap/result/research/> [최우리 (2022). 한겨레 <기후변화&> 인터랙티브 제작기: 생각날 때마다 찾고 싶은 기후변화 공론장 되길. <신문과방송>, 615호, 64-68.]
- Chun, S.-C. (2002).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sociology of generations - An analytical classification of the generation concept.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5(2), 193-230. [전상진 (2002). 세대 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세대개념의 분석적 구분. <한국인구학>, 25권 2호, 193-230.]
- Clayton, S. (2020). Climate anxiety: Psychological responses to climate chang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74, 102263.

- Comfort, S. E., & Park, Y. E. (2018). On the field of environmental communicati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peer-reviewed literature. *Environmental Communication*, 12(7), 862-875.
- Cottle, S. (2011). Taking global crises in the news seriously: Notes from the dark side of globalization. *Global Media and Communication*, 7(2), 77-95.
- Couldry, N. (2010). *Why voice matters: Culture and politics after neoliberalism*.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ox, J. R. (2013). *Environmental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sphere*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ox, R., & Depoe, S. (2015). Emergence and growth of the “field” of environmental communication. In A. Hansen & J. R. Cox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environment and communication* (pp. 33-45). London: Routledge.
- Gong, H. (2022). Youth climate action Yoon Hyunjung activist no more “Korea’s Toonberry”. *Education Today*, 66, 94-107. [공현 (2022). 청소년기후행동 윤현정 활동가 “한국의 톤베리” 소리는 그만. <오늘의 교육> 66호, 94-107.]
- Greene, J. C., Caracelli, V. J., & Graham, W. F. (1989).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mixed-method evaluation design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1(3), 255-274.
- Haugseth, J. F., & Smeplass, E. (2023). The Greta Thunberg effect: A study of Norwegian youth’s reflexivity on climate change. *Sociology*, 57(4), 921-939.
- Hennink, M. M. (2013). *Focus group discuss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ickman, C., Marks, E., Pihkala, P., Clayton, S., Lewandowski, R. E., Mayall, E. E., ... & Van Susteren, L. (2021). Climate anxiety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their beliefs about government responses to climate change: A global survey. *The Lancet Planetary Health*, 5(12), e863-e873.
- Kim, H. J. (2023). Bourdieu’s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and Korean democracy: A hypothesis on a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the people in the democratization gener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64, 1-35. [김현준 (2023). 부르디외의 ‘재현의 정치학’과 한국 민주주의-민주화 세대의 정치적 표상과 인민의 관계에 관한 하나의 가설. <사회이론>, 64호, 1-35.]
- Kim, H. J. (2015). Survival, survivalism, young gener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sociology of the hear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9(1), 179-212.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권 1호, 179-212.]

- Kim, J. I. (2021, October 28). We are a welcome generation, not a lost generation. Brain Media. Retrieved 6/13/24 from <https://www.brainmedia.co.kr/Opinion/22069> [김지인 (2021, 10, 28). 우리는 길 잃은 세대 아닌 웰컴 세대. <브레인미디어>.]
- Kim, J. Y. (2021, July 15). [Korea's Thunbergs] "Next president, picking a candidate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Youths who took the lead in climate politics. Seoul Shinmun. Retrieved 6/13/24 from <https://www.seoul.co.kr/news/plan/chang/tun1/2021/07/16/20210716016011> [김지예 (2021, 7, 15). [한국의 튠베리들] "다음 대통령, 기후위기 대응할 후보 뽑아야" 기후 정치 앞장 선 청소년들. <서울신문>.]
- Kim, M. J., & Lee S.-J. (2023).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youth climate movement in South Korea: Focus on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 youth climate emergency action, and college student climate action. *MARXISM 21*, 20(2), 228-253. [김민정·이상준 (2023). 한국 청년 기후운동의 특징과 한계: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와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학생기후행동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20권 2호, 228-253.]
- Kim, S.-G. (2014). Rethinking the generational research: Critical review on generationalistic tendency. *The Korean Association for Cultural Sociology*, 17, 207-248. [김선기 (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권, 207-248.]
- Kim, S.-G. (2016). The cultural politics of discursive construction of 'younger generation' critical analysis on the discourse of 'younger generation' since 2010. *Press and Society*, 24(1), 5-68. [김선기 (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사회>, 24권 1호, 5-68.]
- Lee, H.-S. (2024). *Environmental communication and the symbolic contact with nature: Focused on the connectedness to nature, interaction with a virtual influencer, and the need to belo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이혜선 (2024). <환경 커뮤니케이션과 자연과의 상징적 접촉: 자연과의 유대감, 가상 인플루언서와의 상호작용, 어울림의 필요(The Need to Belong)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Nussbaum, M. C. (1995). Objectificat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24(4), 249-291.
- Ojala, M., & Bengtsson, H. (2019). Young people's coping strategies concerning climate change: Relations to perceived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friends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 and Behavior*, 51(8), 907-935.
- Park, H. S. (2021). *Climate governance and youth participation: A comparison of South Korea's 2050 LEDS*

- and 2030 INDC decision making proces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박현선 (2021).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청년세대 참여의 의의 및 과제: 대한민국 2050 LEDS와 2030 INDC 수립 거버넌스 비교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Park, H. S., Kim, H.-O., & Kim, S. H. (2023). Two voices on preparation for independence -Comparison of statements by service users and practition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75(4), 13-47. [박해선·김현옥·김소형 (2023). 자립준비에 관한 두 개의 목소리 -당사자와 실천가의 진술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75권 4호, 13-47.]
- Park, I.-J., & Min, K.-H. (2009). Critical review of generation names and generational conflict discours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81, 10-34. [박인조·민경환 (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과 정서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9권 1호, 109-129.]
- Park, J. H. (2009). Critical review of generation names and generational conflict discourse. *Economy and Society*, 81, 10-34.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81호, 10-34.]
- Rho, J. C. (2004). Specialization of risk-communication in environmental new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8(1), 77-105. [노진철 (2004). 환경뉴스에서의 위험커뮤니케이션. <한국사회학>, 38집 1호, 77-105.]
- Schoenfeld, A. C. (1981). The environmental communication ecosystem: A situation report. Retrieved 10/28/24 from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200451.pdf>
- Strife, S. J. (2012). Children's environmental concerns: Expressing ecophobia.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43(1), 37-54.
- Vasi, I. B., & Macy, M. (2003). The mobilizer's dilemma: Crisis, empowerment, and collective action. *Social Forces*, 81(3), 979-998.
- Watts, J. (2019, March 11). Greta Thunberg, schoolgirl climate change warrior: 'Some people can let things go. I can't'. *The Guardian*. Retrieved 10/28/24 from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mar/11/greta-thunberg-schoolgirl-climate-change-warrior-some-people-can-let-things-go-i-cant>
- Weinstein, N., Rogerson, M., Moreton, J., Balmford, A., & Bradbury, R. B. (2015). Conserving nature out of fear or knowledge? Using threatening versus connecting messages to generate support for environmental causes. *Journal for Nature Conservation*, 26, 49-55.
- White, J. (2013). Thinking generation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4(2), 216-247.
- White, J. (2017). Climate change and the generational timescape. *The Sociological Review*, 65(4), 763-778.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 Mental health and climate change: Policy brief. Retrieved 3/19/24 from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45125>
- Won, Y.-J. Lee, D.-Y., & Nho, M.-W. (2006). The myth of youthism.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36, 324-347. [원용진·이동연·노명우 (2006). 청소년주의와 세대 신화. <한국언론정보학보>, 36호, 324-347.]
- Yoon, S.-E., Park, G., & Choi, Y.-S. (2020, September 13). Thunberg is a fake if she is Korean, frustrated by the young man who cried out for the climate crisis. JoongAng Ilbo. Retrieved 6/15/24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70765#home> [윤상언·박건·최연수 (2020, 9, 13). 튠베리가 한국인이면 사이비 된다, 기후위기 외친 청년 좌절. <중앙일보>.]

최초 투고일 2024년 08월 02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0월 01일

논문 수정일 2024년 10월 05일